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Reality and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저자 (Authors)	김영하 Kim Young-Ha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59 , 2010.9, 293-327 (35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59 , 2010.9, 293-327 (3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37017
APA Style	김영하 (2010).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293-32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4 11: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김영하*

- I. 머리말
- II. 중대왕실의 麗·濟平定認識
 1. 무열왕계의 백제 평정
 2. 고구려 평정과 김유신계
- III. 나·당전쟁과 一統三韓意識
 1. 나·당전쟁과 백제 통합
 2. 일통삼한의 의식화 과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660년에 백제를 이어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당과의 전쟁을 통해 676년에 임진강 이남의 백제를 통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民族文化研究院 ; 2007 『新羅 中代社會研究』, 一志社 ; 2008 「일제시기의 진흥왕순수비문」 『韓國古代史研究』 52.

첫째, 신라의 중대 왕실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이다. 신라와 당은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중대 왕실은 외환의 대상이던 두 나라의 멸망 상황을 고구려와 백제의 평정으로 인식했을 뿐, 아직 일통삼한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 평정의 내용도 인민과 영토를 아우르는 통일 의미는 아니었고, 왕도 사비성과 평양성이 함락한 상황에 유의한 것일 따름이었다.

둘째, 신라의 중대 왕실은 어떻게 일통삼한을 의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신라가 당과의 전쟁을 통해 백제 통합을 이룬 뒤에 일통삼한의식이 발생했고, 안승의 보덕국을 흡수한 후에 고구려를 포함하는 일통삼한의식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통삼한의식은 종묘와 사직으로 상징되는 왕조의 통합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문왕은 김유신계와 협력하여 당을 상대로 묘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통삼한의 의식하게 되었다.

결국 일통삼한의식은 왕조 중심의 인식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과 괴리를 보인 신라 지배층의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융합하려는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일통삼한의식은 신라 말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주제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여·제평정, 나·당전쟁, 백제 통합, 일통삼한의식.

I. 머리말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개념의 변천을 검토하는 것도 역사학의 주요 범주이다. 사실에 대해 직서와 객관을 내세우면서도 관점에 따라 달라진 기록과 해석의 궤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사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신라와 당의 전쟁, 발해의 건국 등이 점철된 7세기 후반의 인식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전근대의 유가사학, 근대의 식민사학과 민족주의사학 등이 방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찍이 신재호의 신라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南北國論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7세기 후반 국제전의 결과를 신라의 백

제 통합으로 이해한 바 있었다.¹⁾ 이러한 기본 관점 위에서 한말과 일제시기, 북한학계의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인식 변천,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과 신라의 백제통합전쟁 등으로 주제를 확대하여 신라의 백제 통합에 불과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²⁾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사실에 대한 문제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다시 강조한 경우인데,³⁾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반비판이 있었다.⁴⁾ 다른 하나는 사론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을 이해하는 시각의 하나로 제기한 신라통일론의 부정을 근대적 담론인 통일신라론의 발명으로 치환한 경우이다.⁵⁾ 이에 대해 신라통일론은 식민사학의 발명이 아니라 전근대의 유가사학에서 재편성과 전위를 거친 담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일시 논쟁의 국면이 조성되었다.⁶⁾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논쟁의 단서를 제공한 쟁점 필자는 근대 이후의 신라통일론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에서는 우선 사실 확인의 차원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중대 왕실의 인식과 의식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중대 왕실의 사실 인식과 일통삼한의 의식화 과정에 관해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았다. 먼저 신라의 중대 왕실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배경

1) 金瑛河, 1983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 1988 이기동 외,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2) 金瑛河,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一志社.

3)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4) 김영하, 2009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 『韓國史研究』 146.

5) 윤선태, 2008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황종연 엮음, 『신라의 발견』, 동국대출판부.

6) 김흥규, 2009 「신라통일 담론은 식민사학의 발명인가」 『창작과비평』 145 ; 윤선태, 2009 「통일신라론을 다시 말한다」 『창작과비평』 146.

또는 결과를 일통삼한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만, 중대 왕실이 처음부터 일통삼한의식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인식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라가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의 결과로 백제만을 통합한 사실과 일통삼한의식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중대 왕실도 공유하게 되는 일통삼한의식은 실제의 반영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과정에서 파생된 허위의식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라가 임진강 이남의 백제만을 통합한 데 불과했던 당시의 사실에 대한 중대 왕실의 인식 내용과 일통삼한의식으로의 전화 과정을 밝히려는 셈이다. 이때 삼국을 상대로 펼치는 당의 집요한 책략과 그에 따른 무열왕계와 김유신계의 동향은 물론이고, 왕조 중심의 인식에서도 왕도 함락과 왕조 멸망, 백제 통합과 고구려 포함 등 내포하는 대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중대왕실의 麗·濟平定認識

1. 무열왕계의 백제 평정

이른바 신라의 삼국통일은 삼국시대부터 형성된 동족의식으로서 일통삼한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⁷⁾ 이러한 경우 중대 왕실이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검토는 중요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과연 일통삼한의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7) 邊太燮, 1989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pp.6~8.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아우를 의도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 김유신 전에 처음으로 보인다. 金庾信은 고구려·백제·말갈을 평정하려는 뜻으로 써 하늘에 빌었고, 難勝은 그의 삼국을 아우르려는 마음을 가상히 여겨 비법을 전수했다고⁸⁾ 한다. 그러나 김유신이 진평왕대에 17세의 나이로 수련을 떠날 때까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이유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圓光이 지은 乞師表를 611년에 수에 보내 고구려를 치도록 요청했고, 백제가 楸岑城(괴산 또는 안성)을 내침한 일은 있었다.⁹⁾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후대의 부회가¹⁰⁾ 아니라면, 김유신의 의지는 新州 軍主였던 조부 김무력과 萬鴛郡 太守였던 부 김서현처럼 변경 지방에서 군사적 능력을 통해 금관가야계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던¹¹⁾ 가문의 염원에서 비롯되었을 듯하다.

신라가 백제를 상대로 통합전쟁을 벌인 계기는 642년에 서변의 40여성과 大耶城(합천) 함락에서 촉발되었다. 선덕왕은 당에 위급을 알리는 한편, 사위 김품석 내외가 죽은 金春秋를 고구려에 보내 청병했다. 김춘추의 외교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풀려는 것이었고,¹²⁾ 태자 金法敏도 항복한 扶餘隆에게 의자왕이 자신의 누이 내외를 죽인 사실을 전쟁 동기로 밝히고 있었다.¹³⁾ 신

8) 『三國史記』 卷41, 金庾信 上.

9) 『三國史記』 卷4, 眞平王 33年. 이하에서 지명 비정은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정구복 등이 편찬한 역주본을 참고한 것이다(1997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0) 朱甫噉, 2007 「金庾信의 政治志向」 『新羅史學報』 11, pp.7~8.

11)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民族文化研究院, pp.256~257.

12) 『三國史記』 卷41, 金庾信 上. “善德大王十一年壬寅 百濟敗大梁州 春秋公女子古陁炤娘從夫品釋死焉 春秋恨之 欲請高句麗兵以報百濟之怨 王許之 (中略) 及出境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圖道死耳.”

13) 『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 7年. “法敏跪隆於馬前 唾面罵曰 向者 汝父枉殺我妹 埋之獄中 使我二十年間 痛心疾首 今日汝命在吾手中 隆伏地無言.”

라의 고구려에 대한 청병 외교는 실제로 고구려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춘추가 영토의 반환문제로 실패하자, 선덕왕은 643년에 다시 당에 청병했다.¹⁴⁾ 이번에는 백제와 연병했던 고구려도 거론했는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하러는 뜻을 알고 귀국한 慈藏의 조언에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 태종은 641년에 陳大德을 시켜 고구려를 정탐한 복명 결과에 기뻐한 바 있었고,¹⁵⁾ 636년에 입당하여 태종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643년에 돌아온 자장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은 최고의 귀족 출신인 자장의 귀국을 계기로 신라 조정의 친당화를 꾀했을 수도 있는데, 진덕왕대에 실시한 중국 의관과 연호의 채용, 그리고 당에 대한 정기적 조공 등이 그의 공로로 전하고¹⁶⁾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태종이 제시한 세 가지 대책은 사신이 임의로 응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 중에서 여왕이기 때문에 적을 불러들인다는 신라에 대한 女主迎寇論은 毗曇이 나중에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고, 요동으로 곧바로 쳐들어간다는 고구려에 대한 遼東直入策과 바다를 건너 곧바로 친다는 백제에 대한 泛海直襲策은 이후 당의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춘추가 647년에 당으로 가서¹⁷⁾ 마침내 백제 원정에 대한 출병 동의를 얻어냈다. 645년에 있었던 당 태종의 요동 친정이 좌절

14) 『三國史記』 卷5, 善德王 12年.

15) 『三國史記』 卷20, 榮留王 24年.

16) 『三國遺事』 卷5, 慈藏定律. 한편 『三國遺事』 卷1, 太宗春秋公에 의하면 자장이 당 태종에게 요청해서 가져온 중국 의관과 牙笏을 태종무열왕대에 비로소 사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같은 사안의 시행 시기가 다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신라 조정의 친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당에 의존하려던 비담의 반란을 진압한 김춘추조차 당에서 돌아와 자장에 의해 제기된 친당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전한다.

17)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pp.30~31.

되었으므로, 당도 새로운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던 시점이었다.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가운데 다음의 협약을 맺었다.

文武王 11년(671), 大王이 報書하기를, 先王이 貞觀 22년(648)에 入朝하여 太宗文皇帝를 만나 받든 恩勅에서, “朕이 이제 高麗를 정벌하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新羅가 兩國에 꺾박되어 매년 침입을 받아 편안할 때가 없을 가엽게 여김이니, (중략) 내가 兩國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平壤 已南 百濟土地]는 모두 너희 新羅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하고, 計策을 내리고 軍期를 주었다. (『三國史記』 卷7)

당 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뒤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신라에 귀속시키기로 약속했다.¹⁸⁾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연병하여 655년에 신라 북경의 33성을 공취했을 때, 구원을 요청받은 당의 고구려 공격은 당시 연동하는 국제 정세를 잘 보여주었다. 요동에 대한 외곽 공략책이 실패하자,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대한 직접 공격책으로 선회했다.¹⁹⁾

신라에서 백제를 통합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무열왕계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위후 중대 왕실의 안정을 위해 백제와의 전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18) 노태돈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 차지할 영역으로서 ‘平壤已南 百濟土地’를 ‘고구려 영역 중의 평양 이남지역과 백제 토지’로 해석했다(앞의 책, pp.30~32). 그러나 고구려 원정에 신라를 끌어들이려는 당 태종의 제의에 따라 김춘추와 협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시의 정세에 비추어 보아 김춘추가 백제 이외에 평양 이남까지 아우를 의도를 가지고 입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의 안동도호부가 요동 고성으로 옮겨간 676년부터 대동강 이남을 영유하는 735년 이전까지, 신라는 예성강 이남지역에서 694년에 송악성과 우잠성을 쌓았고 713년에 개성을 축조한 이외의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로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 金瑛河, 2007 앞의 책, pp.101~102.

태종무열왕은 숙위 金仁問을 시켜 당에게 백제 원정을 요청했다.²⁰⁾ 蘇定方과 김인문이 인솔한 당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연합하여 泗泚城을 함락시키자,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망하고 태자 부여용이 660년에 항복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했다. 무열왕계가 백제 원정을 외교적으로 주도했더라도, 군사적 주체는 당이었다. 당과 약속한 고구려가 아직 망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당의 점령정책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이 원정한 목적의 하나는 신라에 대한 지원보다 백제의 羈縻化에 있었다. 郎將 劉仁願이 都護로서 사비의 백제부성에 유진하여 5도독부로 재편된 백제 고지를 통괄하고,²¹⁾ 왕자 金仁泰가 당군에 부응하여 백제 유민의 저항을 진압했다. 웅진도독 王文度가 병사하고 그를 대신하던 劉仁軌가 檢校帶方州刺史로서 백제부성의 기능을 통합한 웅진도독부의 도독 유인원과 함께 扶餘豊을 추대한 백제의 부흥운동에 대처했다.²²⁾ 다른 하나는 평양 직공책을 수행할 후방의 거점 확보에 있었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수·륙 양군으로 평양성을 직접 쳤고,²³⁾ 661년에도 다시 35군을 편성하여 평양성을 공격했다.²⁴⁾ 유인원의 당군과 문무왕의 신라군도 협공작전에 따라 북상했으나,²⁵⁾ 연개소문이 662년의 사수 전투에서 당군을 궤멸시키고 소정방

20) 『三國史記』卷44, 金仁問.

21) 노중국, 2003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pp.69~70.

22) 노중국, 앞의 책, pp.292~294.

23) 『新唐書』卷3, 高宗 顯慶 5年, “十二月壬午 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涇江道行軍大總管 蘇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衛將軍劉伯英爲平壤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24) 『新唐書』卷3, 高宗 龍朔 元年, “四月庚辰 任雅相爲涇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蕭嗣業爲扶餘道行軍總管 右驍衛將軍程名振爲鏐方道行軍總管 左驍衛將軍龐孝泰爲沃沮道行軍總管 率三十五軍以伐高麗.”

25) 『三國史記』卷42, 金庚信 中, “六月 唐高宗皇帝遣將軍蘇定方等 征高句麗 入唐宿衛 金仁問 受命來告兵期 兼諭出兵會伐 於是文武大王率庚信·仁問·文訓等 發大兵向高句麗 行次南川州 鎮守劉仁願以所領兵 自泗泚泛船 至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

이 물러남으로써 평양직공책도 실패로 끝났다.

한편 신라는 우선 백제의 연병 상대였던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서북경을 고수했다. 백제 멸망으로 위기에 봉착한 고구려가 빈틈을 타서 七重城(과주)과 述川城(여주), 北漢山城을 선제 공격했지만,²⁶⁾ 신라는 모두 잘 막아냈다. 다음으로 신라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면서 백제 고지로 진출할 거점을 마련했다. 신라는 사면초가의 당군을 지원하여²⁷⁾ 백제 고지의 내부인 사비성을 비롯한 任存城(예산), 周留城(서천 또는 부안), 豆良尹城(청양), 支羅城(회덕),²⁸⁾ 眞峴城(대덕) 등지에서 백제 유민의 저항과 부흥운동에 대처했다. 또한 태종무열왕대에는 尙禮城(논산)을 공취하여 지키고,²⁹⁾ 押督州를 다시 大耶城으로 옮김으로써³⁰⁾ 전진 기지를 확보했다. 문무왕대에는 웅진으로 통하는 요충인 甕山城을 치고 熊峴城(대덕)을 축조한 뒤 雨述城(대덕)을 항복시켰으며,³¹⁾ 居列城(거창), 居勿城(장수), 德安城(논산) 등지를 공취함으로써³²⁾ 백제 고지의 외곽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신라는 백제 유민의 진압으로 분주한 와중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치렀다.

文武王 2년(662), 3월에 크게 赦免을 실시하고, 王은 이미 百濟를 平定했으므로 所司에게 명하여 大醮를 베풀었다. (『三國史記』 卷6)

26) 『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 7·8年; 『三國史記』 卷47, 匹夫; 『三國史記』 卷42, 金庾信 中.

27)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都護劉仁願 遠鎮孤城 四面皆賊 恒被百濟 侵圍 常蒙新羅解救.”

28) 노중국, 앞의 책, p.200.

29) 『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 7年.

30) 『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 8年.

31) 『三國史記』 卷6, 文武王 元年;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劉摠管筭 共某相隨 先打瓮山城 既拔瓮山 仍於熊峴造城 開通熊津道路.”

32) 『三國史記』 卷6, 文武王 3年.

백제 고지가 당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었지만, 문무왕은 백제를 평정한 기념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큰 연회를 베풀었다. 중대 왕실은 일단 왕도 사비성이 함락된 상황을 백제의 평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백제에 신속했던 耽羅國主가 그 직전에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으므로,³³⁾ 백제를 통합하려는 신라의 입장에서 상징적 의미가 컸다. 백제의 속국이던 탐라는 托羅로서, 신라가 복속시킬 九韓 중의 하나로 꼽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⁴⁾

2. 고구려 평정과 김유신계

신라는 당의 지원으로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외환의 하나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 원정에 임하는 당의 전략이 신라와 달랐기 때문에 기대했던 백제 통합을 이룰 수 없었다. 신라에게는 당을 도와 고구려를 원정한 이후에 백제 고지를 통합할 일이 과제로 남았다. 당은 평양직공책이 실패한 662년부터 665년까지의 소강 기간에 고구려 원정을 대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신라를 기미주인 계림대도독부로 개편했다. 기실 당은 백제를 멸한 직후에 신라마저 점령하려고 기도했다. 당 고종이 신라를 정벌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소정방이 신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도모할 수 없었다라고³⁵⁾ 답한 데서 알 수 있다. 당은 662년에 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으로

33) 『三國史記』卷6, 文武王 2年.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降 耽羅 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

34) 森公章, 1998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pp.247~248 · 263. 다만 삼공장은 문무왕이 679년에 사신을 보내 탐라를 경략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때 비로소 복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탐라가 신라의 속국이 된 이후에도 부단히 왜에 구원을 요청한 데 대한 응징일 수 있었다.

35) 『三國史記』卷42, 金庾信 中.

책봉했던 문무왕을 663년에 다시 鷄林大都督府의 鷄林州大都督에 책봉했다.³⁶⁾ 신라도 당의 기미주인 사실을 인정했으며, 문무왕이 鷄林州大都督左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王金法敏으로 자칭할 만큼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³⁷⁾ 그러한 까닭에 문무왕은 667년에 당으로부터 大將軍의 정절을 받고, 668년에 당의 전시 군제인 총관제에 입각하여 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했던 것이다.³⁸⁾

둘째, 웅진도독부를 후견함으로써 신라를 견제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663년에 종식된 뒤, 유인궤는 당 고종에게 백제 유민의 안무를 위해 부여용의 기용을 건의했다.³⁹⁾ 663년에 백강구 전투에 참전하고⁴⁰⁾ 664년에 熊津都尉로 부임했던 부여용이 665년에 다시 웅진도독에 임명됨으로써,⁴¹⁾ 기미주로서 백제와 신라의 처지는 같아졌다. 당이 양국의 회맹을 강제함에 따라 칙사 유인원의 주재로 부여용이 664년에 김인문·천존과 熊嶺(대덕)에서 동맹하고 우선 그곳을 경계로 삼았으며, 다음 해에는 문무왕과 웅진 취리산에서 다시 회맹하여 양국의 전체 강역을 획정했다.⁴²⁾ 당제에 따라 1도독부-7주-51

36) 『三國史記』卷6, 文武王 2·3年.

37) 『三國史記』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38) 金瑛河, 2007 앞의 책, pp.177~178.

39) 『新唐書』卷108, 劉仁軌. “又表用扶餘隆 使綏定餘衆 帝乃以隆爲熊津都督.”

40) 『資治通鑑』卷201, 高宗 龍朔 3年. “於是仁師·仁願與新羅王法敏將陸軍以進 仁軌與別將杜爽·扶餘隆將水軍及糧船自熊津入白江 以會陸軍 同趣周留城.”

41) 노중국, 앞의 책, pp.297~299.

42) 『三國史記』卷6, 文武王 4·5年; 『三國史記』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至麟德元年 復降嚴勅 責不盟誓 卽遣人於熊嶺 築壇 共相盟會 仍於盟處 遂爲兩界.” 664년의 동맹처가 본기에서는 웅진이지만, 문무왕의 답서에서는 웅령으로 나온다. 이 동맹이 당의 강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鄭求福 외, 앞의 책, p.208), 백제와 신라의 지배 영역을 획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노중국, 앞의 책, pp.301~302). 그러나 동맹처가 신라와 백제의 부흥군이 자주 교전하던 대덕 지방의 요충인 웅령 곧 웅현이라면(李丙燾, 1977 『三國史記』國譯篇,

현으로 재편된 백제 영역에 대한 신라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려는⁴³⁾ 데 주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고구려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책을 도모했다. 유인궤는 취리산 회맹을 마친 뒤 泰山 封禪에 참석하기 위해 신라의 김인문을 비롯한⁴⁴⁾ 백제·탐라·왜 등 네 나라의 사신을 데리고 귀국했다. 한편 연개소문의 사후 보장왕의 태자 福男도 당의 일정에 맞추어 665년 10월 25일에 낙양으로 입조하고, 같은 달 29일에 당 고종과 함께 낙양을 출발하여 666년 정월 초하루에 거행된 태산 봉선에 참석했다. 요동공략책은 물론 평양직공책도 실패로 끝났으므로, 당이 고구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내분을 획책한 결과였다. 연개소문의 장남 男生이 당으로 망명하고, 동생 淵淨土는 신라로 투항하기에 이르렀다.⁴⁵⁾

넷째, 신라 조정에 대해서도 이간책을 구사했다. 회유 대상은 당 태종이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⁴⁶⁾ 백제 원정을 전후하여 당과의 결전도 불사했던 김유신이었다.⁴⁷⁾ 소정방은 편의종사권으로써 김유신에게 백제 토지를 食邑으로 줄 것을 제의했다.⁴⁸⁾ 김유신과 함께 제의를 받았던 김인문과 김양도가 知唐派로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포상의 의미만은 아니

乙酉文化社, p.114), 문무왕의 답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응령만을 경계로 삼는 데 동맹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3) 『三國史記』卷6, 文武王 5年. “其盟文曰(中略) 既盟之後 共保歲寒 若有背盟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陲 明神監之 百殃是降 子孫不育 社稷無守 禮祀磨滅 罔有遺餘.”

44) 『三國史記』卷44, 金仁問.

45) 金瑛河, 2007 앞의 책, pp.108~113. 『三國史記』卷6, 文武王 8년에 의하면 연정토는 元器와 함께 당으로 갔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당이 고구려의 내분을 피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46) 『三國史記』卷41, 金庾信 上.

47) 『三國史記』卷5, 太宗武烈王 7年; 『三國史記』卷42, 金庾信 中.

48) 『三國史記』卷42, 金庾信 中.

있을 것이다. 당 고종은 인덕 2년(665)에 梁冬碧과 任智高를 보내 김유신을 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에 책봉했는데,⁴⁹⁾ 고구려 원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라와 고구려에 대해 견제, 분열, 회유 등의 공작을 마친 당은 666년부터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한편 문무왕도 천존의 아들 漢林과 당 고종의 칙명에 의해 숙위로 소환된 김유신의 아들 三光⁵⁰⁾을 당에 보내 고구려 원정을 요청했다. 당의 관심을 고구려로 돌림으로써 백제를 통합하려는 신라의 전략일 수 있었다. 유인계가 668년에 김삼광과 함께 당 고종의 칙지를 가지고 도착하자, 문무왕은 대장군으로서 김유신을 위시한 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했다. 김유신은 실제 출전하지 않았는데, 본기에서는 문무왕이 風病을 이유로 만류했다고⁵¹⁾ 한다. 그러나 열전에서는 동생 김흠순의 출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무왕이 守國을 명분으로 참전시키지 않았다고⁵²⁾ 한다. 어느 내용이 실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김유신을 고구려에 원정시킴으로써 백제를 통합하려는 신라의 역량 약화를 기도한 당의 책략은 일단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平壤城을 포위하자, 보장왕은 668년에 男産을 李勳에게 보내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했다. 당은 평양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薛仁貴가 檢校安東都護로서 9도독부-42주-100현로 재편된 고구려 고지의 지배에 당의 관인을 참여시켜 內地化를 도모했다.⁵³⁾ 이제 신라는

49)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여기의 奉常正卿은 太常寺의 正3品 卿을 가리키는 바 『唐六典』 卷14, 太常寺에서 태상시가 662년에 奉常寺로 바뀌었다가 670년에 복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665년의 김유신에 대한 책봉 기사는 신빙성이 높다.

50)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51) 『三國史記』 卷6, 文武王 8年.

52)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53) 栗原益男, 1979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唐代史研究會 編,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pp.147~148 참조.

고구려의 왕도 평양성까지 함락된 상황에서 신라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文武王 8년(668), 11월 5일에 王이 노획한 高句麗人 7천을 데리고 入京하였다. 6일에 文武 臣僚를 이끌고 先祖廟에 고하기를, “삼가 先王의 뜻을 이어 大唐과 함께 義兵을 일으켜서 百濟와 高句麗의 죄를 물어 元兇이 伏罪되고 國運이 泰靜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감히 고하노니 神이여 들으소서”라고 하였다. (『三國史記』 卷6)

문무왕은 당과 더불어 백제는 물론 고구려까지 평정함으로써 국운이 태평해진 사실을 선조묘에 고했다. 중대 왕실이 실제로 일통삼한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주관하는 告由儀式에서 표출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통삼한의식은 이후 ‘既平兩敵’을 기념하여 실시한 죄인 사면과 부채 탕감에 관한 669년의 下敎, ‘始平兩國’으로 표현한 671년의 설인귀에 대한 문무왕의 答書, 문무왕의 백제와 고구려 원정을 ‘西征北討’로 피력한 681년의 遺詔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⁵⁴⁾ 결자가 많아 완전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 무렵에 활동했던 문무왕과 김인문의 비문에서도 일통삼한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文武王陵碑〉에 9주를 아우르고 동서를 정당한 내용은⁵⁵⁾ 보이지만, 비가 세워진 682년⁵⁶⁾은 후술할 바와

54) 『三國史記』 卷46, 強首에서 문무왕이 강수에 대해 논공행상한 내용은 공식 문서에서 아니지만, 강수가 문장으로 태종무열왕의 ‘以平麗濟를 도왔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5) 〈文武王陵碑〉, “九合一匡 東征西□.” 이하에서 인용하는 금석문 자료는 한국고대사회연구소가 편찬한 역주본에 의거한 것이다(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56) 今西龍, 1970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p.503; 金昌

같이 중대 왕실이 아직 일통삼한을 의식하기 이전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부식은 신라가 당군의 위엄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성대를 이룬 듯이 평가했을 것이다.⁵⁷⁾

한편 당은 고구려의 멸망 직후 왜의 정벌을 병자하고 신라를 치려했으며,⁵⁸⁾ 김유신계에 대한 회유도 멈추지 않았다. 당 고종은 총장 원년(668)에 김유신을 조서로써 포장하고 당에 입조를 유시한 바 있었으며,⁵⁹⁾ 669년에 사죄사로 함께 파견되었던 金良圖를 억류하여 죽이면서도 670년에 金欽純의 귀국은 허락했다. 이때 김흠순은 장차 신라와 당의 경계를 획정할 때, 백제 고지는 모두 돌려주는 것으로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다.⁶⁰⁾ 중대 왕실로서는 거북한 임무를 띠고 귀국한 김흠순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었다. 또한 당 현종은 개원 21년(733)에 발해를 공격할 때 김유신의 손자 允中에게 금과 비단을 내리고, 성덕왕에게는 그를 장군으로 반드시 차정하도록 강제하여 동생 允文과 함께 출병할 수 있었다.⁶¹⁾

김유신은 신문왕대에 태종무열왕을 도운 聖臣, 혹은 문무왕과 더불어 二聖으로 받아들여졌다.⁶²⁾ 그러나 성덕왕대에는 태종무열왕의 딸이자 김유신의 처인 智炤夫人은 여전히 왕실의 지우를 받았더라도, 손자 김운중은 이미 왕실 종친에게 질투와 견제를 받는 존재로 변하고 있었다.⁶³⁾ 성덕왕의 비호로

鎬, 1983 「永川 菁堤碑 貞元十四年銘의 檢討」 『韓國史研究』 43, p.126.

57) 『三國史記』 卷12, 敬順王 9年 論. “又憑王師之威靈 平百濟·高句麗 取其地郡縣之可謂盛矣.”

58)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至總章元年(中略) 又通消息云 國家修理船艘 外託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不安.”

59)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60)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咸亨元年(中略) 至七月 入朝使金欽純等 至 將畫界地 案圖披檢 百濟舊地 摠令割還.”

61)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62) 『三國遺事』 卷1, 太宗春秋公 ; 『三國遺事』 卷2, 萬波息笛.

무마될 수는 있었지만, 그런 경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김유신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는 추세에 따라 김유신계는 왕실과 종친으로부터 더욱 소외되어갔다. 그들에 대한 당의 부단한 회유는 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중대 왕실을 자극하여 갈등을 내연시켰을 수도 있다. 김유신의 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당 고종의 조서 분실이 저간의 사정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⁶⁴⁾

결국 중대 왕실은 외환의 소멸로 인한 태평을 여·제평정으로 인식할 따름이었는데, 평정의 내용도 인민과 영토를 아우르는 일통의 의미는 아니었다. 김유신은 평양의 당군에게 군량을 수송하던 중에 당의 힘을 빌려 고구려와 백제의 二城을 함락시킴으로써 원수를 갚겠다고 장사들을 격려한 바 있었다.⁶⁵⁾ 두 왕성의 함락은 곧 고구려와 백제의 평정을 의미하는데, 신라와 당의 군사가 왕도에 이르러서 함께 백제를 평정했다는⁶⁶⁾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63) 『三國史記』卷8, 聖德王 11年; 『三國史記』卷43, 金庾信 下.

64) 『三國史記』卷43, 金庾信 下에서 가문에 전해오던 당 고종의 조서는 5세손에 이르러 분실했다고 하는데, 5세손은 김유신전의 저본인 『行錄』 10권을 지은 현손 金長淸 자신의 세대에 해당한다. 김장청과 같은 세대인 현손 金巖이 활동하던 혜공왕대에는 김유신의 혼령이 중대 왕실의 시조인 미추왕릉을 찾아가서 하소연할 정도로 위상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기백이 주목한 바와 같이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金融이 반란을 일으킨 정치적 배경이었으며(1974 「新羅 惠恭王代之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pp.249~252), 이문기도 밝혔듯이 태종무열왕대에 중대 왕실과 동일한 혈족집단으로 표방했던 금관가야계의 少昊金天氏 出自說이 혜공왕대에 본래의 天降金卵 出自說로 환원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2004 「金官加耶系의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p.32·48). 이러한 외증에서 조서가 분실된 만큼 단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김장청은 김유신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진 779년 이후 중대 왕실에 기여한 김유신계의 공로를 과장하여 세상에 알리려고 『행록』을 편찬했을 것이다.

65) 『三國史記』卷42, 金庾信 中.

66) 『三國史記』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至顯慶五年(中略) 船兵纔入江口 陸軍已

있다. 중대 왕실의 여·제평정인식은 백제와 고구려의 왕도를 함락시킨 사실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Ⅲ. 나 · 당전쟁과 一統三韓意識

1. 나 · 당전쟁과 백제 통합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에 대한 귀속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백제를 통합하려는 신라와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나 · 당연합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여 · 제평정 이후 신라가 당과 싸워 백제를 통합함으로써 비로소 일통삼한의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통삼한에 관한 내용은 불교 관련 기록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이고 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공덕으로 삼한을 아울러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⁶⁷⁾ 황룡사구층탑을 세운 음덕으로 삼한을 일통했다고⁶⁸⁾ 한다. 백제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신라는 위기 극복에 힘을 기울였다. 청병 외교와 같은 현실적인 방법 이외에 불법의 가피에 의존하는 관념적인 방법도 모색되었다. 선덕왕의 요청으로 귀국한 자장의 건의에 따라 645년에 착공한 황룡사구층탑이 646년에 준공되었던 것이다.⁶⁹⁾ 그러나 신라가 일통삼한을 의식하고 불교를 공인하거나, 황룡사구층탑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불법

破大賊 兩軍俱到王都 共平一國.”

67) 『三國遺事』卷3, 原宗興法·獸羈滅身. “他方菩薩 出現於世 西域名僧 降臨於境 由是併三韓而爲邦 掩四海而爲家.”

68) 『三國遺事』卷3, 皇龍寺九層塔. “樹塔之後 天地開泰 三韓爲一 豈非塔之靈蔭乎.”

69)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乃命監君伊干龍樹(中略)其十四年歲次乙巳 始構建四月□□立刹柱 明年乃畢功.”

의 인연으로 삼한을 일통한 과보가 나타났다는 의미이므로, 황룡사구층탑에 보이는 일통삼한은 후대의 결과에서 나온 평가로 여겨진다.⁷⁰⁾

신라와 당의 전쟁은 각각 백제 통합과 고구려 점령이라는 기본 전략의 차이에 기인했다. 당은 백제의 경우와 달리 고구려 고지의 지배정책에 신라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라도 역시 백제의 경우와 달리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백제를 통합할 전략을 구사했다. 신라에게 백제 고지와 고구려 유민은 각각 통합과 이용 대상으로서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신라의 薛烏儒가 670년에 고구려의 高延武와 함께 각각 정병 1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屋骨에서 말갈병을 깨뜨린 일이 있었다.⁷¹⁾ 옥골의 위치 비정과 관련한 사실의 해석에서 기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왔다. 그 하나는 압록강을 패강으로 비정하고, 평양 일대에서 일어난 劍牟峯의 반란을 신라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⁷²⁾ 다른 하나는 옥골을 요동의 烏骨城으로 보고, 신라가 백제 고지에서의 성과를 담보하려는 양동작전으로 이해했다.⁷³⁾ 어느 경우에도 당의 작전 범위는 제약되었을 것이므로, 신라의 백제 통합은 더욱 용이할 수 있었다.

고구려 유민의 당에 대한 저항은 安勝을 추대함으로써 부흥운동으로 전환했다. 검모잠은 670년에 패강 이남에서 당의 관인과 승려 法安 등을 살해하고, 안승을 추대한 다음 신라에 후건을 요청했다. 당의 高侃이 토벌에 나섰으므로, 안승은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했다.⁷⁴⁾ 문무왕이 같은 해에

70) 金相鉉, 1980 「新羅 三寶의 成立과 그 意義」 『東國史學』 14, pp.62~63 참조.

71) 『三國史記』 卷6, 文武王 10年.

72) 池內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2, pp.66~67.

73)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pp.3~7.

안승을 백제 고지인 金馬渚(익산)에 안치한 뒤, 고구려왕에 책봉하여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한 조치는 당에게 충격이었다. 당이 멸망시킨 고구려 왕조의 부활을 천명하는 한편, 백제 왕실의 제사를 잇도록 후견한 웅진도독 부여용에 상대하는 의미도 없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백제에 대한 통합을 추진했다. 문무왕은 670년에 웅진도독부가 우호 제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신라를 도모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벌에 나섰다. 품일·문충·중신 등이 63성을 공취하고, 천존·죽지와 군관·문영 등이 각각 7성과 12성을 깨뜨리는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와중에 薛仁貴가 671년에 문책하는 서신을 보낸 데 대해, 문무왕은 해명하는 답서를 보냈다. 신라는 백제 통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당과의 전쟁에 대비한 명분을 피력했다.

신라는 671년에 사비에 所夫里州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백제 통합을 이루었다. 673년에는 왕도의 외곽과 변경 지방의 방어 시설을 정비하고, 백제를 멸한 뒤에 없었던 수병을 다시 두었다.⁷⁵⁾ 한편 당은 柵都儒로 하여금 한성주를 습격하도록 사주하거나,⁷⁶⁾ 670년에 신라를 배반하려고 모의한 藪世와 673년에 신라에 모반하고 당에 붙으려던 大吐 같은 친당파를 매개로 분란을 일으키면서 고구려 점령에 군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신라는 673년에 북변으로 내침한 당군과 거란·말갈병을 瓠瀟河(파주 임진강)와 王逢河(고양한강) 일대에서 크게 격파했다.⁷⁷⁾ 당은 674년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종식시킨 다음 신라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文武王 14년(674), 正月에 왕이 高句麗의 叛衆을 받아들이고 또 百濟 故地

74) 『三國史記』 卷6, 文武王 10年; 『三國史記』 卷22, 寶臧王 27年.

75)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3年.

76)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77)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3年.

를 점거하고 官人을 시켜 지켰다. 唐 高宗이 크게 노하여 조서로써 王의 官爵을 삭탈하고 王弟 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 仁問이 京師에 있었으므로 그를 세워 新羅王으로 삼아 귀국시켰다. 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 劉仁軌를 鷄林道大摠管으로 삼고 尉衛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으로 副官으로 삼아 군사를 내어 쳐들어왔다. (『三國史記』 卷7)

당은 신라의 도발에 대해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한 다음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아 귀국시킴으로써 신라 조정의 분열을 획책하고, 여기에 군사적 행동까지 수반함으로써 신라와 본격적인 나·당전쟁에 돌입했다. 유인궤가 675년에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이기고 돌아가자, 이근행이 대신하여 경략에 나섰다. 문무왕의 사죄로 관작은 복구되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남경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文武王 15년(675), 그러나 (신라는) 百濟의 토지를 거의 차지하고, 마침내 高句麗 南境에 이르기까지 州郡으로 삼았다[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唐軍이 거란·말갈병과 함께 來侵한다는 소문을 듣고 九軍을 내어 기다렸다. (『三國史記』 卷7)

여기에서 고구려 남경은 과거에 김유신이 한강 및 칠중하를 건너서 들어간 고구려의 ‘남쪽 경계’로서⁷⁸⁾ 서북경의 임진강 일대였다. 임진강은 김유신이 평양으로부터 귀환할 때 고구려군과 교전했던 瓠瀘河 곧 瓢河이며,⁷⁹⁾ 〈金仁問碑〉에는 瓠盧水로 나오고 있다.⁸⁰⁾ 같은 675년에는 安北河(덕원 북면천)

78) 『三國史記』 卷5, 善德王 11年. “王命大將軍金庾信 領死士一萬人赴地 庾信行軍過漢江 入高句麗南境.”; 『三國史記』 卷42, 金庾信 中. “壬戌正月二十三日 至七重河(中略) 遂先自上船而濟 諸將卒相隨渡河 入高句麗之境.”

79)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三國史記』 卷42, 金庾信 中.

를 따라 요새를 설치하고 鐵關城(덕원)도 축조함으로써 동북경은 원산만에 이르렀다.

만일 고구려 남경을 대동강 이남의 ‘남쪽 경역’으로 보고 신라가 675년에 이곳에 주군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반도를 통일한 것으로 해석하면,⁸¹⁾ 다음의 두 가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첫째, 신라는 당시 임진강과 칠중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전선에서 당과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대동강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다. 둘째, 신라는 694년에 임진강 이북에 처음으로 松岳城(개성)⁸²⁾과 牛峯城(금천)을 쌓았고 713년에 開城(개풍)을 축조했을 뿐, 아직 주군의 설치는 없었다.

당은 고구려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라에서 숙청된 金眞珠의 아들 風訓을 향도로 泉城(파주 또는 재령)으로 내침했고, 買肖城(양주 또는 연천)과 道臨城(통천)도 공격했다.⁸³⁾ 그러나 이근행의 당군이 매초성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소부리주를 공격하려던 당의 수군도 676년에 伎伐浦(금강 하구)에서 격파됨으로써 나·당전쟁도 종막을 고했다. 당은 吐蕃과의 전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소극적인 퇴수책의⁸⁴⁾ 일환으로 당의 관인을 먼저 혁파했던 안동도호부를 676년에 요동 고성(요양)으로 옮겼고, 다음 해에는 다시 신성으로 이치했다. 웅진도독부도 건안 고성(개평)으로 옮김으로써 백제 고지로부터 완전히 철수했다. 당 고종은 678년에 다시 신라를 원정하려고 시도했지만, 張文瓘이 토번 토벌의 긴급성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중지되었다.⁸⁵⁾

80) <金仁問碑>. “其本國兵軍□虜境以橫行 返于瓠盧水.”

81) 朝鮮史學會 編, 1927 『朝鮮史講座』上世史, 朝鮮史學會, pp.201~203.

82) 『三國史記』卷35, 漢州 松岳郡.

83) 『三國史記』卷7, 文武王 15·16年.

84) 陳仁恪, 2001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pp.334·345.

85) 『資治通鑑』卷202, 高宗 儀鳳 3年.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文瓘臥疾在家 自輿入見

신라가 나·당전쟁의 결과로 통합한 지역은 임진강과 원산만 이남에 불과했으며, 신문왕대에 군현제와 十停을 일제히 정비하면서도 한강 이북은 거의 방치하는 상태였다.⁸⁶⁾ 발해가 732년에 압록강 하류를 통해 등주를 공격하자, 당은 다음 해에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변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던 대가로 735년에 패강(대동강) 이남의 영유를 인정했다.⁸⁷⁾ 신라의 출병은 무위로 끝났지만, 서북경의 확장은 당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았다. 신라는 경덕왕과 헌덕왕대에 예성강 이북과 대동강 이남지역에 14개 군현을 두었고, 782년에는 발해에 대한 방위책으로 패강진(평산)을 설치할 수 있었다.⁸⁸⁾

2. 일통삼한의 의식화 과정

이상의 논의는 중대 왕실이 일통삼한을 의식하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한 전제였다. 이른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의미의 일통삼한의식은 신문왕대에 보덕국을 해체하고 9주를 완비한 뒤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⁹⁾ 그러나 문무왕대에 백제를 실질적으로 통합한 후의 일통삼한은 함의가 달랐으며, 신문왕대에 고구려를 포함하는 일통삼한의식으로의 전화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했다.

문무왕은 나·당전쟁이 본격화된 674년에 고구려왕 안승을 報德王으로 다시 책봉했다.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이 당에 대한 도발이었다면, 신라의 덕화에 귀의한 뜻의 보덕왕 책봉은 당과의 전쟁 명분이었다. 즉위초에 金欽突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대내적 안정을 이룬 신문왕은 684년에 안승의 조카

諫曰今吐蕃爲寇 方發兵西討 新羅雖云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不勝公私其弊 上乃止。”

86) 李基東, 1976 「新羅 下代の 涇江鎮」 『韓國學報』 4, p.4.

87) 『三國史記』 卷8, 聖德王 34年.

88) 李基東, 앞의 논문, pp.7~9·13.

89)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pp.137~138.

大文의 모반을 계기로 보덕국을 금마군으로 편제했다.⁹⁰⁾ 고구려의 왕도는 점령하지 못했지만, 왕조를 통합하는 형식은 갖추었던 셈이다. 다음 해에 9주를 정비하여 ‘始備九州’를 선포하고, 백제 통합의 일통삼한이 고구려 포함의 일통삼한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686년에 건립된 〈淸州雲泉洞寺蹟碑〉에 나오는 삼한의 통합에서⁹¹⁾ 여·제평정으로부터 일통삼한으로의 담론 변화를 읽어낸 근거였다.⁹²⁾

그러나 김유신은 673년에 문병차 찾아온 문무왕에게 삼한을 한 집안으로 삼은 결과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小康을 언급했다.⁹³⁾ 중대 왕실은 여·제평정을 太平으로 인식한 데다 보덕국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의 삼한이 삼국일⁹⁴⁾ 수는 없었다. 또한 문무왕도 기왕에 한 집안으로 삼을 대상으로서 같은 기미주인 백제를 지목한 바 있었다.⁹⁵⁾ 따라서 신라가 백제만을 통합한 상태에서 삼한은 마한·변한·진한이며, 여기에 고구려는 포함될 수 없었다.

김춘추는 진덕왕대에 당 태종이 房玄齡, 褚遂良, 許敬宗 등에게 명하여 새로 편찬한 『晉書』를 가지고 귀국한 바 있었다. 당 태종이 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진서』를 김춘추에게 하사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었다.⁹⁶⁾ 동이 열전의 馬韓에서 마한·진한·변한의

90) 『三國史記』卷8, 神文王 4年.

91) 〈淸州雲泉洞寺蹟碑〉. “合三韓而廣地 居滄海而振威.”

92) 김홍규, 앞의 논문, p.384.

93) 『三國史記』卷43, 金庾信 下. “庾信對曰 臣愚不肖 豈能有益於國家 (中略)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雖未至太平 亦可謂小康.”

94) 노태돈은 김유신이 삼한을 삼국으로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김유신전이 갖는 사료적 한계를 고려하여 최초의 사례로 단정하지는 않았다(1982 앞의 논문, p.138).

95) 『三國史記』卷7, 文武王 11年 文武王報書. “并云 新羅百濟 累代深讎 今見百濟形况 別當自立一國 百年已後 子孫必見吞滅 新羅既是國家之州 不可分爲兩國 願爲一家 長無後患.”

삼한과 辰韓에서 변진을 언급하고 있으나,⁹⁷⁾ 실제로 변한 혹은 변진은 따로 입전되지 않았다. 한편 『삼국지』의 동이전에 입전되었던 고구려는 玄菟郡의 속현으로⁹⁸⁾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당시의 진한=신라가 이런 내용에 따라 사실 인식에서 제약을 받았다면 마한=백제의 통합만으로 일통삼한을 의식할 수 있었으며, 고구려는 일통삼한의 범주에 들 수 없었을 것이다. 중대 왕실의 여·제평정인식이 일통삼한의식으로 전화할 계기는 당과의 관계에서 제공되었다.

神文王 12년(692), 당의 中宗이 口勅하기를, “我太宗文皇帝는 神功과 聖德이 천고에 뛰어났다. 그러므로 봉어하던 날에 太宗으로 廟號를 삼았다. 너희 나라 先王 金春秋를 그와 같이 태종으로 한 것은 매우 참람한 일이니 반드시 고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왕과 群臣이 함께 의논하여 대답하기를, “(정략) 그러나 생각건대 先王 春秋는 자못 賢德이 있고, 하물며 생전에 良臣 金庾信을 얻어 한 마음으로 정치하여 三韓을 일통하였으니[同心爲政 一統三韓]그 功業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후략)”라고 하였다. (중략) 그 이후 별다른 칙명이 없었다. (『三國史記』 卷8)

위 사료는 태종의 묘호문제가 주요 내용이지만, 중대 왕실이 일통삼한을 의식하는 데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당은 나·당전쟁 이후 소원해진 신라를 다시 속박하기 위해, 中宗이 구두로 칙명하는 형식으로 태종무열왕의 묘호가 당 태종의 그것에 저촉된다는 외교적 난제를 제기했다. 한편 『三國遺事』는 당 고종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신문왕은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이 일통삼국한 사실로써 응대한 것으로 기록했다.⁹⁹⁾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96) 李成珪, 2004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이성규 외,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pp.50~52.

97) 『晉書』 卷97, 東夷, 馬韓·辰韓.

98) 『晉書』 卷14, 平州 玄菟郡.

대해 두 사서가 전하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여러 견해가 나왔다.

첫째, 당 중종은 684년에 則天武后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고종이 681년에 즉위한 신문왕을 책봉하려고 파견한 책봉사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다.¹⁰⁰⁾ 둘째, 유사한 내용에 대한 별개의 사건으로서 681년에 고종과 692년에 중종이 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¹⁰¹⁾ 위의 두 견해처럼 681년을 따를 경우 보덕국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통삼한 또는 일통삼국은 백제 통합만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셋째, 周의 황제인 측천무후가 692년에 唐朝 舊臣들에게 당의 종실을 무시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새삼 당 태종의 묘호문제를 제기하고, 중종이 구직하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我太宗’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¹⁰²⁾ 한편 『資治通鑑』은 측천무후가 690년에 주의 황제로 즉위하여 당 예종을 皇嗣로 삼은¹⁰³⁾ 뒤에도 여전히 ‘太后’로 표기했으며, 698년에 다시 황태자로 책립되었던 중종이 태후의 전위로 705년에 즉위하여 모든 문물제도를 682년 이전으로 복구하는¹⁰⁴⁾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필법에 따르면 측천무후에 의해 묘호문제가 제기되었더라도, 『삼국사기』는 당 중종의 구직에 의한 것으로 바꾸어 기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문왕은 대외적 안정을 위해 群臣, 즉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를 중심으로 의논한 결과 김춘추와 김유신이 ‘同心爲政 一統三韓’한 사실을 들어 묘호문

99) 『三國遺事』卷1, 太宗春秋公. “神文王時 唐高宗遣使新羅曰(中略) 新羅王上表曰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 故封爲太宗 帝見表 乃思儲貳時 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降於新羅爲庾信 紀在於書 出檢視之 驚懼不已 更遣使許無改太宗之號.”

100) 權惠永, 2005 「8·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p.5 ;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pp.306~307 ; 노태돈, 앞의 책, pp.278~279.

101) 金壽泰, 1999 「羅唐關係의 變化와 金仁問」 『白山學報』 52, pp.673~674.

102) 金子修一, 2001 「中國의 입장에서 본 三國統一」 『韓國古代史研究』 23, p.11.

103) 『資治通鑑』卷204, 則天后 天授 元年.

104) 『資治通鑑』卷207, 中宗 神龍 元年.

제를 해결했다. 신문왕대에 활동한 김유신계의 대표적 인물로는 아들 김삼광이 있었다. 그는 신문왕이 金欽運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 택일하는 일을 맡았고, 또한 그 즈음에 정권을 장악하고 인사권도 행사한 바 있었다.¹⁰⁵⁾ 김유신계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당과의 관계에서는 중대 왕실의 경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었다. 이때 당의 고구려 원정에 기여했던 김삼광이 신문왕에 협조함으로써 중대 왕실은 물론 당의 태도 변화도 기대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보다시피 태종무열왕이 김유신을 얻어 ‘一統三國’한 까닭에 묘호를 태종으로 올린 것으로 답하고, 당도 三十三天의 하나인 김유신으로 상징되는 김유신계가 신문왕과 협력한 사실을 알고 묘호문제를 재론하지 않게 되었다. 후손들이 조상의 업적을 매개로 공동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대 왕실은 내연하던 김유신계와의 갈등을 미봉하고 일통삼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일통삼한은 태종무열왕이 실제 백제만을 멸망시켰으므로 사실로서의 삼한인가, 아니면 태종무열왕에게 소급시킨 업적으로서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국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 고종은 문무왕의 도발에 대한 문책으로 김인문을 하옥시켰는데, 이때 함께 갇혔던 朴文俊이 당의 은혜를 입어 신라가 일통삼국하고 그로 인한 일련의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당 고종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다.¹⁰⁶⁾ 기실 김흠순과 같이 사죄사로 파견되었던 김양도가 김인문과 함께 투옥되었을 때의 일로 보이지만,¹⁰⁷⁾ 당의 도움으로 삼국을 일통한 사실을 당 고종에게 상기시킨 점은 믿어도 좋을 듯하다. 신문왕도 이미 평양지역을 포기한 당에게 과거의 지원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현안을 해

105) 『三國史記』 卷8, 神文王 3年; 『三國史記』 卷47, 裂起.

106) 『三國遺事』 卷2, 文虎王法敏. “文俊奏曰 陪臣等來於上國一十餘年 不知本國之事 但遙聞一事爾 厚荷上國之恩 一統三國 欲報之德 新刱天王寺於狼山之南 祝皇壽萬年 長開法席而已 高宗聞之大悅.

107) 金壽泰, 앞의 논문, pp.662~664.

결하고자 고구려를 포함하는 일통삼한을 표방하는 한편, 당 태종과 교섭했던 태종무열왕의 업적으로 부회함으로써 唐朝를 무시하지 않으려던 측천무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여기의 일통삼한의식은 백제와 고구려의 왕조를 통합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소위 ‘統三’은 태종무열왕의 업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¹⁰⁸⁾

신라 말기에 최치원도 「上太師侍中狀」에서 마한·변한·진한을 각각 고구려·백제·신라에 결부시킨 다음, 당과 더불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한 태종무열왕의 공로와 그것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거론했다.¹⁰⁹⁾ 그가 당에서 삼국을 동질적 족속의 삼한으로 인식한¹¹⁰⁾ 데 맞추려고 왜곡한 것도 아니었다. 백제와 마한의 역사적 연계를 알고 있음에도¹¹¹⁾ 불구하고, 신문왕대에 당과의 관계에서 백제 통합의 일통삼한이 고구려 포함의 일통삼한으로 전화할 때 조성된 일종의 허위의식을 따라왔을 뿐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최치원은 郎慧和尚의 8대조인 태종무열왕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¹¹²⁾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통삼한의식은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신라와 고구려를 각각 진한과 마한에 대응시켜¹¹³⁾ 삼한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

108) 『三國遺事』卷3, 蓋藏寺彌陀殿. “諺傳 太宗統三已後 藏兵蓋於谷中 因名之.”

109) 『三國史記』卷46, 崔致遠. “故其文集有上大師侍中狀云 伏聞 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中略) 後以高麗·百濟踵前造惡 武烈王朝請爲鄉導 (中略) 至今三百餘年 一方無事滄海晏然 此乃我武烈大王之功也.”

110) 盧泰敦, 1982 앞의 논문, pp.131~133. 삼한과 삼국의 관계에 대한 당의 인식도 〈扶餘隆墓誌銘〉에서는 마한과 백제의 계승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보장왕의 손자 〈高震墓誌銘〉에서는 그의 신분을 辰韓의 令族으로 표현하듯이 체계적이지 않았다(梁起錫, 1995 「百濟 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 p.154 참조).

111) 이강래, 2004 「최치원의 고대 인식과 그 함의」 『孤雲學報』 2, p.47.

112) 〈聖住寺郎慧和尚塔碑〉. “先祖平二敵國 俾人變外飭 大師降六魔賊 俾人修內德.”

113) 趙法鍾,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의 檢討」 『韓國史研究』 102, pp.58~59.

로 확대되어 있었다.

결국 백제를 통합한 뒤에 김유신의 업적과 관련하여 일통삼한의식이 발생했고, 고구려를 계승한 보덕국을 흡수한 후의 정치와 외교 과정에서 태종 무열왕의 업적으로 부회된 일통삼한, 즉 일통삼국의식이 신라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일통삼한과 일통삼국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는데, 그런 일통삼한의식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과연 三韓을 합하여 한 집안으로 만들고[果合三韓 以爲□□], 君臣의 안락은 지금까지 이에 힘입었다.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872))

옛날에 우리 太宗大王이 백성들의 도탄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미상), 三韓에서 전쟁이 그치고 一統이 이루어진 때였다[止戈三韓之年 垂衣一統之日], (미상), □□의 재앙을 길이 없었다고 하여 특별히 이 산을 봉하여 큰 공훈을 표창하였다. (〈月光寺圓郎禪師塔碑〉(890))

과연 치열한 전투로 재앙을 없애고 무기를 거두어 경사를 드날리니, 옛날의 조그만 三國이 이제야 장하게도 한 집안이 되었다[昔之蕞爾三國 今也壯哉一家]. (〈鳳巖寺智證大師塔碑〉(924))

위의 첫 사료에서 朴居勿은 황룡사구층탑의 건립이 삼한의 통합과 신라 조정에 끼친 공덕을 기렸고, 다음 사료에서 金穎은 태종무열왕이 삼한을 일

『三國史記』 卷50, 弓裔에서 진한=雞林과 마한=鴨綠의 圖讖詩가 새겨진 古鏡을 먼저 당 출신의 상인 王昌瑾이 구입하여 해독한 다음에 궁예의 문인들이 왕건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해석하는 설화도, 기실 신문왕대에 당을 상대한 정치와 외교의 과정에서 형성된 고구려 포함의 일통삼한의식이 신라사회의 저변에 확산됨으로써 기왕의 백제 대신에 고구려를 마한에 재배치한 사실을 전제로 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통한 의미를 되새겼다. 신라의 골품체제에 회의를 품었던 최치원조차 실제로는 893년경에 찬술한 마지막 비문에서 삼국의 일통을 찬양했던 것이다. 일통의 대상이 삼한과 삼국으로 달리 표현되더라도, 삼국을 일통했다는 일통삼한의식은 골품귀족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신라 지배층의 의식은 왕조 중심의 인식으로 인해 실제와 괴리될 수밖에 없었더라도,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융합하려는 현실의 필요에서 정치적 이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일통삼한의 이념은 백제 유민에 대한 통합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고,¹¹⁴⁾ 마침내 궁예와 견훤이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을 표방하면서 파탄을 맞았다.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때에 왕명으로 편찬된 선사의 탐비에서 일통삼한 또는 일통삼국이 언급되는 현상이 흥미롭지만, 신라의 일통삼한의식은 함의와 밀도를 달리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로 이어졌다. 고려 초기에 존재하던 고구려 계승의식이 신라 계승의식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김부식이 삼국과 신라의 역사를 일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도, 김유신이 당과 협력하여 왕조로서의 三國이 아닌 지역으로서의 三土를 합하여 한 집안으로 만든 것으로 평가할¹¹⁵⁾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지도 모른다.

IV. 맺음말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의 연동 결과로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660년에 백제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당과의 전쟁을 통해 마침내 676년에 임진강 이남의 백제를 통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신라의

114) 金瑛河, 2007 앞의 책, pp.224~225.

115) 『三國史記』卷 43, 金庾信 下 論. “故庾信得以行其志 與上國協謀 合三土爲一家 能以功名終焉.”

중대 왕실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통삼한을 의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대 왕실은 문무왕대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麗·濟平定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라는 642년의 대야성 함락을 계기로 백제를 통합할 전략을 정하고, 무열왕계가 외교적으로 주도했다. 김춘추는 고구려를 상대한 청병이 실패한 이후 당 태종과의 협약을 통해 백제 원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당도 요동공략책이 실패했으므로, 평양직공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은 웅진도독부를 통해 백제 고지를 기미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직접 공격했다. 신라는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임진강 일대의 서북경을 고수하는 한편, 백제 고지로 진출할 외곽의 거점을 마련했다. 문무왕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상황 속에서 662년에 백제 평정을 기념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당은 평양직공책이 실패로 끝난 662년부터 665까지의 소강 기간에 삼국을 상대로 공작을 펼쳤다. 신라의 계림대도독부로의 개편, 부여웅의 웅진도독 임명, 보장왕과 연개소문 자제에 대한 내분, 김유신에 대한 회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당은 고구려 원정을 재개했다. 당은 안동도호부를 통해 고구려 고지의 내지화를 꾀했고, 신라는 668년에 외환의 원인이던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太平으로 선조묘에 고유했다. 이때 문무왕은 두 왕도의 함락에 유의하여 여·제평정으로 인식할 뿐, 아직 일통삼한으로는 의식하지 않았다. 한편 당은 김유신계를 끊임없이 회유함으로써 백제를 통합하려는 중대 왕실을 견제했다.

다음으로 중대 왕실은 신문왕대에 정치와 외교의 과정에서 一統三韓을 의식하게 되었다. 당이 백제 고지의 귀속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신라와 당의 전쟁은 불가피했다. 신라는 백제 통합을 위해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으로 상징되는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지원했고, 당은 고구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임진강 일대의 주전선에서 신라와 공방을 벌였다. 신

라는 671년에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임진강 이남의 백제를 통합할 수 있었고, 당은 676년에 안동도호부를 요동 고성으로 옮김으로써 평양지역을 사실상 포기했다.

신라가 실질적인 백제 통합을 이룬 뒤에 삼한 통합의 일통삼한의식이 발생했다. 문무왕은 한 집안으로 삼을 대상으로 백제를 지목한 바 있었고, 김유신은 자신의 업적과 관련하여 삼한을 한 집안으로 삼은 小康을 언급했다. 이러한 의식이 684년에 보덕국을 흡수한 후에 고구려 포함의 일통삼한, 즉 일통삼국의식으로 전화할 계기는 당과의 관계에서 촉발되었다. 측천무후는 692년에 중종이 구척하는 형식을 빌려 태종무열왕의 묘호가 당 태종에 저촉되는 외교적 난제를 신라에 제기했다. 신문왕은 두 왕조의 통합에 기초하여 태종무열왕의 업적으로 부회된 일통삼한의식을 표방하고, 당과의 관계에서 서로 불편했던 김유신계와 협력하여 唐·周의 교체로 불안정한 측천무후를 상대함으로써 묘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통삼한의식은 왕조 중심의 인식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과 괴리를 보였지만, 전근대의 유가사학에서 신라정통론을 지탱시킨 근거로 작용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이제 일통삼한의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 근대사학에서 신라통일론의 논리와 함의를 밝힐 일이 과제로 남는다.

투고일 : 2010.6.21

심사개시일 : 2010.8.27

심사완료일 : 2010.9.5

참고문헌

1. 저서

-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民族文化研究院
金瑛河,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一志社
노중국, 2003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李丙燾, 1977 『三國史記』國譯篇, 乙酉文化社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鄭求福 외, 1997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今西龍, 1970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森公章,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朝鮮史學會 編, 1927 『朝鮮史講座』上世史, 朝鮮史學會

2. 논문

- 權惠永, 2005 「8·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金相鉉, 1980 「新羅 三寶의 成立과 그 意義」 『東國史學』 14
金壽泰, 1999 「羅唐關係의 變化와 金仁問」 『白山學報』 52
金瑛河, 1983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김영하, 1988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이기동 외,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김영하, 2009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 『韓國史研究』 146
金昌鎬, 1983 「永川 葦堤碑 貞元十四年銘의 檢討」 『韓國史研究』 43
김흥규, 2009 「신라통일 담론은 식민사학의 발명인가」 『창작과비평』 145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邊太燮, 1989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梁起錫, 1995 「百濟 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
윤선태, 2008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황종연 엮음, 『신라의 발견』,
동국대출판부

- 윤선태, 2009 「'통일신라론'을 다시 말한다」 『창작과비평』 146
- 이강래, 2004 「최치원의 고대 인식과 그 함의」 『孤雲學報』 2
- 李基東, 1976 「新羅 下代の 涇江鎮」 『韓國學報』 4
- 李文基, 2004 「金官加耶系의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 李成珪, 2004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이성규 외,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 趙法鍾,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의 檢討」 『韓國史研究』 102
- 朱甫噉, 2007 「金庾信의 政治志向」 『新羅史學報』 11
- 陳仁恪, 2001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 金子修一, 2001 「中國의 立場에서 본 三國統一」 『韓國古代史研究』 23
- 栗原益男, 1979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唐代史研究會 編,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 池內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2

Abstract

Reality and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Kim, Young-Ha

Silla joined hands with the Tang Dynasty to destroy Baekje in 660 and Goguryeo in 668. In 676 Silla also integrated Baekje, south of the Imjin river, through the war against the Tang Dynasty. This study recovers reality of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which is explained in relation to unified Silla, as it is often referred to, despite this historical fact.

The first issue is how the royal family of Silla's middle period perceived collapse of Baekje and Goguryeo. Silla and the Tang Dynasty were allied in accordance with a strategy respectively to conquer Baekje and Goguryeo. The royal family of Silla's middle period regarded the destruction of the two nations -their external troubles- as pacification toward Baekje and Goguryeo, and did not consider the destruction as three Hans' unification. The substance of pacification did not mean unification including the people and the territory, but it only paid attention to falls of the capitals, Sabiseong Fortress and Pyeongyangseong Fortress.

The second one is how the royal family of Silla's middle period became conscious of three Hans' unification. The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emerged after Silla integrated Baekje through the war against the Tang Dynasty, and it transformed into the consciousness including Goguryeo after Silla merged with Anseung's Bodeokguk. The royal family of Silla's middle period began to be aware of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as it resolved diplomatic issues with the Tang Dynasty in cooperation with Kim Yu-Shin's lineage.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of those days was based on unification of nations characterized by Jongmyo Shrine and Sajik Altar.

In conclusion,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is nothing but false consciousness of Silla's ruling class divorced from historical facts due to royal family-oriented way of thinking. However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 lasted

until the late Silla because it functioned as an political ideology binding displaced people of Baekje and Goguryeo.

Key words : destruction of Baekje, destruction of Goguryeo, pacification toward Baekje and Goguryeo, the Silla-Tang War, integration of Baekje, consciousness of three Hans' unification